

서울시 사회 계층과 지역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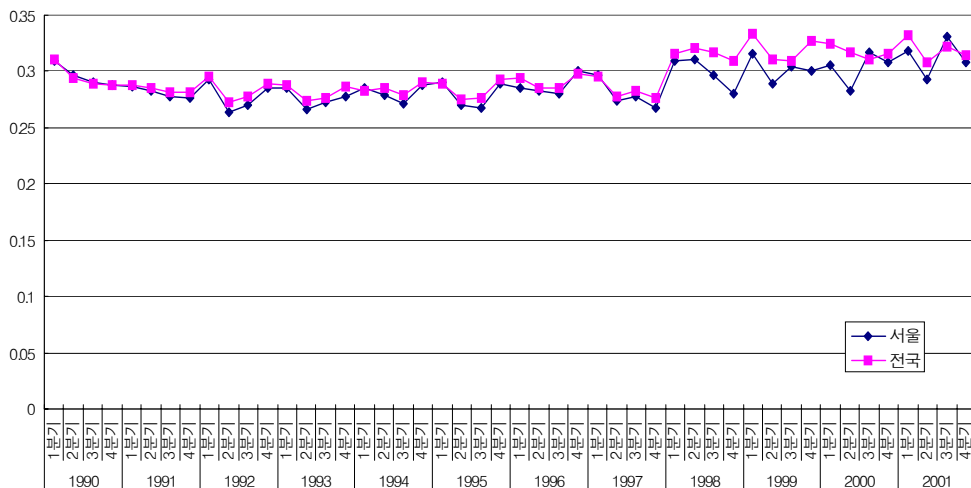
- 인구 1000만의 도시로서 서울은 공간적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로써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서울은 한국의 대표적 도시로서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회이고 동시에 서울 사회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서울에서 바람직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불평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한 사회의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는 사회적 과정의 특성인 사회 통합과 갈등의 기초적 조건을 형성함
- 서울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시기별 소득 불평등 추이와 사회 계층의 경제적 특성, 계층의식 그리고 지역별 격차의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함

서울의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 최근의 정책적인 논의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많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 지역 사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절실함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도시가계조사]는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에 관련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계 조사 원 데이터에서 서울 주민의 사례를 분리하여 가구소득의 불평등의 추이를 전국과 비교 분석하였음.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공개된 도시가계조사의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지니계수(Gini Index)로 본 가구 소득의 불평등 추이 분석

-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지니계수의 추이는 1990년대 중반기까지 안정적이었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높아짐. 즉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울과 전국의 가구 소득의 불평등 추이는 유사하였으나, 이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함. 서울의 가구소득의 불평등 추이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불평등 추이보다 낮음
- 그리고 분기별 가구 소득의 불평등의 변이가 심해지고 있음



자료: 1990~2001년 도시가계연보

[그림 1] 서울과 전국의 지니계수 추이

[표 1] 도시가구 소득의 지니 계수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서울	1분기	0.31	0.29	0.29	0.29	0.29	0.29	0.29	0.30	0.31	0.32	0.31	0.32
	2분기	0.30	0.28	0.26	0.27	0.28	0.27	0.28	0.27	0.31	0.29	0.28	0.29
	3분기	0.29	0.28	0.27	0.27	0.27	0.27	0.28	0.27	0.30	0.30	0.32	0.33
	4분기	0.29	0.28	0.28	0.28	0.29	0.29	0.30	0.27	0.28	0.30	0.31	0.31
전국	1분기	0.31	0.30	0.30	0.29	0.28	0.29	0.29	0.30	0.32	0.33	0.32	0.33
	2분기	0.29	0.29	0.27	0.27	0.29	0.28	0.28	0.28	0.32	0.31	0.32	0.31
	3분기	0.29	0.28	0.28	0.28	0.28	0.28	0.29	0.28	0.32	0.31	0.31	0.32
	4분기	0.29	0.29	0.29	0.29	0.29	0.29	0.30	0.28	0.31	0.33	0.32	0.31

- 가구 소득은 직업과 가구 소득원의 구성에 영향을 받는 데 IMF 외환위기 이후 서울의 가구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서울은 한국에서 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 지역이기에 전국보다는 소득의 불평등도가 작을 수 있음
 - 소득의 불평등의 정도가 계절적으로 큰 것은 소득의 불안정함을 보여 줄 뿐 만 아니라 직업의 불안정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서울의 사회계층 조사

- 서울 시민의 삶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서울시 사회계층 조사가 이루어졌음. 이 조사에서 가구 소득과 더불어 여러 차원의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의 현황을 알 수 있음
 - 조사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0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의 서울시 시민을 대상으로 1500명의 표본을 설계하였고, 2002년 6월 15일에서 2002년 7월 6일 기간에 설문지와 조사원을 통한 개별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졌음
- 서울의 평균적 시민의 경제 상황
 - 평균적인 서울시민은 38세, 가족 수는 평균 4인으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월평균 가구소득은 281만원, 가구주의 소득은 231만원으로 가구 전체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월평균 가구지출은 169만원임. 한달에 약 84만원을 저축하며, 이 금액은 가구소득 대비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평균적인 서울시민은 가구당 평균 부동산은 1억1천5백만원, 금융자산은 3천6백만원을 가지고 있음이 조사되었으며, 주로 26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31평형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음

서울의 사회 계층 구성

- 자산, 가구소득, 생활비, 주 소득원의 직업소득에 따라 서열화하여 사회 계층을 20%단위로 5개 계층을 구성하였음. 계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산이었음

[표 2] 2002 서울시 사회계층조사 (단위 : 만원)

		총자산		가구소득		생활비		가구부채		가구저축	
		평균	3분위 기준	평균	3분위 기준	평균	3분위 기준	평균	3분위 기준	평균	3분위 기준
지표에 의한 계층 구분	I(상위 20%)	37799.5	268	439.3	162	251.0	156	949.75	169.8	150.27	184.6
	II(21- 40)	21581.0	153	333.5	123	195.9	121	1002.70	179.3	102.98	126.5
	III(41- 60)	14082.9	100	271.3	100	161.0	100	559.41	100	81.39	100
	IV(61- 80)	7275.2	52	226.7	84	132.3	82	689.80	123.3	69.53	85.4
	V(81-100%)	1463.6	10	163.9	60	98.2	61	585.71	104.7	47.47	58.3
	1분위/5분위	25.8배		2.7배		2.6배		1.8배		3.2배	

주1 : 총자산=금융자산+부동산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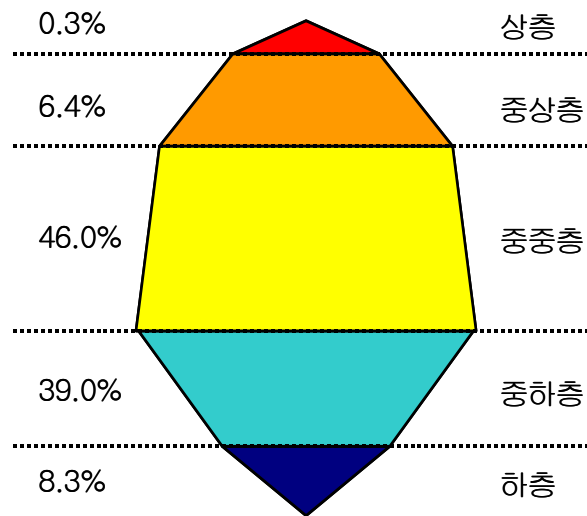
주2 :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주3 : 가구부채는 최고부채/최저부채비율을 의미함

- 사회 계층간의 격차는 자산에서의 격차가 두드러짐. III 계층을 기준으로 볼 때 I 계층은 2.6배를 가지고 있으며, III 계층은 V 계층에 비해 10배의 자산 규모를 지니고 있음. I 계층은 V 계층(하위 20%)의 총 자산의 25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가구소득과 생활 지출의 격차는 일관성을 지님. 가구소득에서의 격차는 III 계층을 기준으로 I 계층은 1.6배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지출에서도 유사한 1.52배를 지출하고 있음. III 계층과 V 계층의 격차는 V 계층이 III 계층에 비해 가구 소득에서는 60%, 지출에서는 61%를 보여주고 있음. I 계층의 가구소득과 생활비는 각각 V 계층의 2.7배, 2.6배에 해당함

주관적 계층 의식과 계층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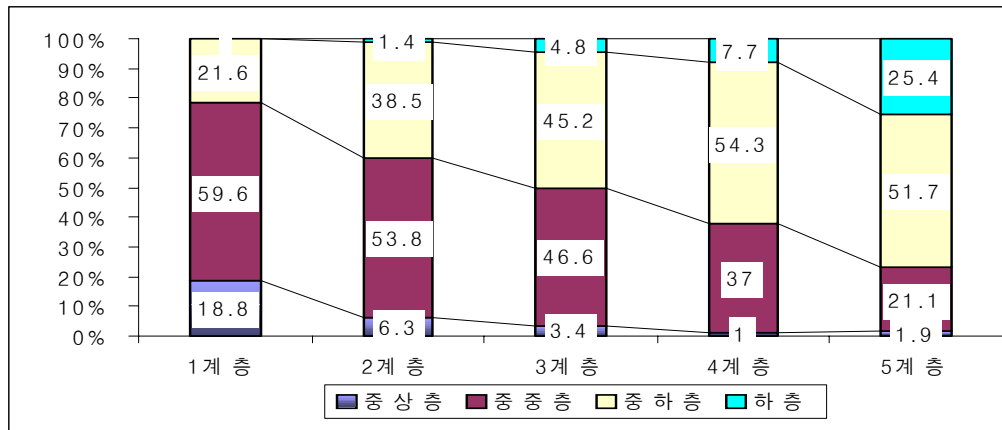
- 계층의식은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함. 시민 개인의 계층에 대한 소속감은 계층의식으로 표현됨
 - 조사에서 상층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 사람들은 극히 드뭄 (0.3%) 중상층은 6.4%, 중중층은 46.0%, 중하층은 39.0% 하층은 8.3%에 해당함. 이 사항에서 일상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85.0%에 해당함
 - 마름모 이미지의 계층구조 인식 : 시민들에게는 사회의 계층구조가 마름모의 형태로 인식되어짐을 추론할 수 있음



[그림 2] 서울시민의 계층의식 구조

- 사회계층별 계층의식: 중산층 귀속 의식이 주류
 - I ~ V 계층으로 분류한 사회계층의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점은 서울시민의 강한 중산층 귀속의식임
 - 실제 상위 20%에 해당하는 I 계층은 대부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II와 III 계층은 중중층 계층으로의 소속감이 강함
- IV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대부분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인식함
- V 계층 계층의식에서 자신이 하층이라는 생각보다는 중하층이라는 인식이 월등함



[그림 3] 사회계층별 계층의식 분포

사회 계층의 지역적 분포

- 계층의 분포를 서울의 9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봄으로써 지역별 사회 구성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함

[표 3] 서울 사회 계층의 지역 분포 (단위 : %)

		계층구분					계
		I계층	II계층	III계층	IV계층	V계층	
서울시 9개권역	도심권	12.1	17.2	22.4	22.4	25.9	100.0
	동북1권	7.5	16.5	19.5	27.1	29.3	100.0
	동북2권	11.5	19.8	20.9	24.7	23.1	100.0
	서북권	24.4	19.2	23.7	17.3	15.4	100.0
	서남1권	12.2	22.0	22.0	23.2	20.7	100.0
	서남2권	29.6	26.7	20.0	12.6	11.1	100.0
	서남3권	26.5	19.3	18.1	12.0	24.1	100.0
	동남1권	44.0	11.0	13.0	19.0	13.0	100.0
	동남2권	14.3	25.9	18.8	19.6	21.4	100.0
계		20.0	20.0	20.0	20.0	20.1	100.0

거주지역별
1. 도심권: 종로, 중, 용산구
2. 동북권 : 동북1권(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구), 동북 2권(성북, 도봉, 강북, 노원구)
3. 서북권: 서대문, 마포, 은평구
4. 서남권: 서남 1권(강서, 양천구), 서남 2권(영등포, 구로, 금천구), 서남3권(동작, 관악구)
5. 동남권: 동남 1권(서초, 강남구), 동남 2권(송파, 강동구)

- 도심권은 하위층 계층의 거주가 두드러진 지역임
- 동북권 지역은 서울시 전체에 비해 하위층의 비중이 높음
- 서북권은 상층과 중층이 두드러진 지역
- 서남권은 지역별로 계층구성의 차이가 큼
- 동남1권은 서울의 상층 계층의 거주가 두드러진 지고, 동남2권은 중상층의 거주가 두드러짐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 지역의 가구를 단위로 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5개 대생활권단위로 하여 보았음
 - 가구소득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고지역과 최저 지역의 차이가 1.12배의 차이를 보임

[표 4] 서울시 지역별 자산·소득 평균 (단위 : 만원)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도심권	269.75	22259.26	2563.64	3085.77
동북권	264.55	18561.11	4018.66	3083.68
서북권	297.46	20123.71	2999.68	2335.53
서남권	289.74	18635.77	2668.05	3595.98
동남권	292.32	29935.19	10546.63	3398.82

[표 5] 서울시 5개권역별 소득·자산·지출 격차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최저	동북권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최고	서북권	동남권	동남권	서남권
최고/최저	1.12배	1.61배	4.11배	1.54배

-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동남권이 가장 많고 동북권이 가장 적은 데 1.61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금융자산의 경우는 격차가 두드러지는 데 도심권과 동남권의 격차는 4.11배에 해당되고 있음

서울의 계층 현상의 특성

- 서울의 가구 소득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증대하였음
 - 계층들간의 격차는 소득 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이 큼
 - 서울 시민은 중산층의식이 대부분임
 - 지역간의 계층분포의 차이는 현저하고,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도 현격한 면을 보임
- 이러한 현상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 지역적 통합의 토대가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이 큼으로 인해 계층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음. 불로소득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화는 사회 갈등의 소지가 높음. 최근의 강남북 지역간의 인식과 갈등은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줌
- 사회 계층과 지역 격차에 대한 사회 통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한 사항임

조권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kjchoh@sdi.re.kr